

디자인비평의 필요성에 따른 이론과 방법론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Seeking The Theory and Methodology of Design Criticism in Need

조경숙, 정성환, 양종열, 김태호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Cho Kyoung-sook, Chung Sung-whan, Yang
Jong-youl, Kim Tei-ho
Dept. of Industrial Design, Chonbuk National Univ.

● Keywords: Design, Criticism, Theory, Methodology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자인은 우리 일상의 삶 자체를 담아내고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를 형성시키고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의 문화란 인간 상호간의 관계방식과 약속으로 형성된 인공환경이자 일상의 삶을 구축하는 사고와 활동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디자인과 관련하는 한 단순히 아름답다, 미적이다, 무엇인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예술적인 관점에서만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즉 문화의 빠른 변화와 확산 속에서 디자인 가치의 이념인 인간중심 사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디자인의 새로운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디자인 행위는 시대상황에 따른 생활문화의 창조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은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형성된 생활문화는 새로운 디자인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서로 다른 문화는 아름다움에 대한 서로 다른 척도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는 배경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우리생활의 중심적인 문제로써 디자이너 개인의 취향이나 디자이너 자신의 표현적인 문제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가치와 효율적인 가치를 더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인 창조활동이다. 이러한 디자인의 개념확장과 대중화로 인한 디자인 행위의 다양화는 그 내용의 선별이나 구분을 필요로 하게되며 이때에 여과하는 장치로서 비평의 기능이 강조되게 된다. 이러한 비평의 필요성 속에서 디자인의 이론과 비평의 중요성이 디자인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행위나 디자인 창작과정에서 이론과 비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도적 단계에 있는 디자인비평의 현실에서 기존의 비평이론들의 개념과 이슈들을 도입하여 디자인비평의 그 역할과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고 디자인비평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디자인비평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내용

1. 비평의 어원 및 개념

비평의 영어로의 정의인 Critic은 회랍어의 '판단하다(judge)', '결정하다(decide)', '분리하다(separate)' 는 뜻을 가진 Krinein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어원으로부터 '결정적 순간 또는 지점' 이라는 뜻의 Critic(위기, 위독)과 '기준' 이라는 뜻의 Criterion(회랍어로 시험의 뜻)이란 어휘도 발생하였다. 한편 라틴어의 동종의 어원은 cernere로서 원래 '체로 친다(sieve)', 구분한다(distinguish), 분간한다(discern), 이해한다(understand) 또는 결정한다(decide)' 등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비평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으로서 어떤 기준에 따라 작품의 장점과 단점을 판별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2. 비평의 발생과 발전

그리스 예술이 이백여 년 이상에 걸쳐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풍요함을 보여준 이후 고대 작품들이 물려준 것은 권위적 규범이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미학' 은 바움 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에 의해 비로소 체계화되었고 한편 피들러(Konard Fiedler)의해 미의 세계가 곧 예술의 세계가 아닌 까닭에 예술론은 미학에서 고찰될 성질이 아니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으며, 칸트(Immanuel Kant)의 방법에 의한 그의 예술론이 전개됨으로써 체계화가 시작되었다. 즉, 원래 예술작품의 비평이라는 문예비평에서 시작된 것이며, Renaissance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詩學) 및 수사학(修辭學)을 전거(典據)하여 문학작품을 비평한 것이 성행하였으므로 그것을 전통비평(traditional criticism)이라 하며 18세기말까지 지속되었다. 렉싱(Lessing, 1727~1781), 헤르더(Herder, 1744~1803), 괴테(Goethe, 1749~1832) 등에 의해 번역이 가해지면서 생트, 부드(Sainte-Beuve, 1804~1869)에 이르러서야 근대비평으로서 그 성격이 확립되게 된다.

3. 비평방법의 분류

비평을 분류함에 있어 여러 주장이 있다. 특히, 기준에 따른 절대주의적 경향인가, 직접경험과 인상에 의한 것인가, 객관·상대주의적 관점인가, 경험적 사실인가에 따라 재단비평(미학비평, 윤리비평), 인상비평(감상비평, 심미비평), 과학적 비평(사회학적 비평, 심리학적 비평, 역사적 비평, 개체발생사적 비평), 현상학적 비평으로 나뉘며, 비평의 주요 대상에 따라서는 작가(의도주의 비평, 심리비평), 작품(내재적 비평, 유형비평), 맥락(이데올로기비평, 양식비평), 이용자(대중적 비평), 비평가(인상주의 비평)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의도주의 비평

의도(intention)라는 말은 심리적인 용어이다. 그것은 창작 이전이나 창작하는 동안 예술가가 산출해내기를 원하는 완성된 예술작품에 대해서 가지는 개념이다.

-심리비평

심리비평의 특징은 작가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경험 등을 연구함으로써 작품의 모호했던 부분들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방법이다.

-내재적 비평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입장에서 오직 작품의 내재적 본질에만 집중하며 작품 외적인 요소들을 기피한다. 이런 비평방법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비평운동으로 '신비평(New Criticism)'이라고 알려진 문학비평 운동이다.

-유형비평

유형비평은 독창성에 초점을 맞추려하지 않고 그 대신 유사한 목적을 만족시키거나 유사한 형태 또는 유사한 구조체계에 근거를 둔 작품들 가운데에서 보편성을 찾는다.

-이데올로기 비평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이 비평은 예술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양식비평

양식비평은 사회와의 의존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양식(style)안에 위치하며 거기에서 가치와 의의를 찾으려하는 것이다.

-대중적 비평

예술은 동시대인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사람들까지도 향유하게 될 미적 대상이기에 예술가나 전문비평가의 비평만큼 일반대중의 비평역시 가치가 있다.

-인상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의 개성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비평방법이다. 역사적 사실에서 예술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지를 찾아내어 시적인 정서를 전달하는데 주력한 빈센트 스컬리(Vincent Scully)가 대표적인 인상주의 비평가라 할 수 있다.

4. 디자인비평과 예술비평

디자인은 그 생성동인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전통적인 분류체계의 조형예술 속에 포함된 조각, 기념비적인 예술, 건축, 공예, 회화, 그래픽, 장식 등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왔고, 미래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디자인과 예술의 상호관련성을 더욱 명백히 해주고 있다. 이러한 관련성 속에서 문학, 미술, 음악, 영화, 건축, 조경 등의 분야에서 비평활동이란 그 역사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와 비평이 각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디자인비평과 예술비평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예술작품은 '미학의 자율적 가치 감상 대상으로 존재하는 언어'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자체의 의미가 해석되고 그 내재적 가치를 '감상'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기호·언어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 디자인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실용적 도구 즉 외재적 가치로 존재한다. 때문에 예술평가가 그 자체로서 자율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적 가치에 의해 판단된다면, 디자인의 평가는 우선적으로 그것이 원래 의도한 기능의 효율성에 비추어 결정해야 한다. 또한 예술비평과 디자인비평은 역사적 맥락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예술비평은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디자인비평은 역사라는 수직적 맥락과 아울러 공간적 주변을 형성하는 다른 요소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디자인비평은 디자인 창작과정에서 목적인 특수한 실용적 기능 외에도 미학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여건 즉 다원적 맥락과의 총체적 조화가 다각적으로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5. 디자인비평의 접근방법

디자인비평과 예술비평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디자인이라는 대상의 분류적 애매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여러 분야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고 이러한 관점으로 디자인비평의 접근형식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자인이 두 가지 이상의 비평접근 수단을 복합시키거나, 아주 특별한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서만 접촉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1) 윤리적 해석으로서 접근 - 규범, 관행과 도덕성을 통해.

윤리성은 디자이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적 의지에 의한다. 대체로 이러한 윤리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극단적 추구, 또는 디자이너의 자의적 오류에 의해 문제가 된다.

(2) 사회적 해석으로서 접근 - 사회적 의의와 시대정신의 표현을 통해.

모든 예술이 동시대의 사회적 표현으로서 해석되며, 시대마다의 사회적 가치가 달리 평가되듯, 디자인은 매우 강한 사회적 속성 속에서 성립된다. 결국 디자인과 사회는 실제로 상호의존적일 뿐 아니라, 두개의 국면이 하나의 현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3) 역사적 해석으로서 접근 - 시대적 가치의 발굴과 기록을 통해.

수직적인 맥락으로서의 문화흐름 속에서 디자인 가치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 미술학적 해석으로서 접근 - 형식적, 심리학적 접근을 포함한 심

미성을 통해.

디자이너가 가시적 대상으로서 갖는 가치는 디자인 제품이 나타낼 수 있는 심미성의 기대 때문이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정신능력으로서의 미의 감각은 대상만을 전부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상 이전의 개념으로부터 디자이너의 예술의지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대상이다.

(5) 수단적 해석으로서 접근 - 기능, 기술, 환경, 경제성의 평가를 통해.

디자인 내용의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디자인의 추상적 가치를 표현하는 배경이 된다.

6. 디자인비평 활성화를 위한 선행요건

첫째, 디자이너, 대중, 비평가 사이에서 비평의 올바른 개념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율성이 있는 비평」 또는 「학문적 바탕 위에서 구축되는 비평」의 디자인계의 비평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디자인의 서구이론을 연구·수용하는데 그칠 뿐 그것을 비평적 언어로 체화시킬 수 있는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비평이란 개인적 행위이지만 디자이너와 대중사이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중적인 행위가 된다. 따라서 대중적 공개매체가 필요하다.

III. 결론

현재 디자인비평이 몇몇 디자이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에서, 개념정립 없이 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앤더슨의 견해에 따르면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디자인비평이 본래의 기능인 디자인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문화창조의 여과장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때만이 디자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디자인비평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미미한 실정에서 각각의 예술분야 비평이념과 방법을 통해서 디자인 비평에 대한 이론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디자인에서 비평이 기존의 디자인적 현상에 대한 비판 의식과 함께 새로운 문화창조 주역으로서의 조건이므로 디자인행위와 함께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기능이다.

참고문헌

- 김경수(1980) "건축비평의 기본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정환(1993) "조경비평의 이론과 방법론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란(1978) "현대미술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수(1992) "예술비평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희(1998) "광고비평이 수용자의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국(1992) "디자인 가치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 김민수(1997) "21세기 디자인문화 탐사", 숲.
- 최경원(1998) "대지예술의 재조명", 「한국조형학회」, 26(2) : 181~193.
- 이육희(1998) "한국 현대건축비평의 방법론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18(2) : 617~622.
- 김홍희(1999) "비평계를 비평한다", 「월간미술」, 1월.
- 박이문(1995) "예술비평과 건축비평", 「대한건축학회」, 4월 : 16~18.
- 강한섭(1990) "한국의 영화평론" 「대한건축학회」, 9월 : 43~47.
- Jerome Stoinitz, 오병남 역(1996)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이론과 실천, p.458~461

■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 개발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